

耕齋 李建昇의 亡命前 交遊詩 研究*

이은영 **

-차 례-

1. 서론
2. 교유시
 - 2.1.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시
 - 2.2. 강화학파 인물들과의 교유시
 - 2.3. 강화지역 인사들과의 교유시
3.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592)

* 성균관대학교 강사/nan_gurum@naver.com

[국문초록]

본 논문은 耕齋 李建昇(1858~1924)의 『海耕堂收草』(일명 『耕齋集』)에 수록된 망명 전 한시 가운데 교유시를 통해 이건승의 망명 전 삶의 일면과 문학적 역량을 살펴본 것이다. 경재가 망명지에서 교유한 인물들은 함께 망명을 떠난 강화학파의 洪承憲(1854~1914)과 鄭元夏(1855~1925)를 제외하면 망명 전 교유한 적이 없던 영남지역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달리 그가 망명 전 교유한 인물들은 남촌시사 문인들, 강화학파 인물들, 강화지역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친일 행적을 보인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교유가 한창이던 시절 경재의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시는 형의 죽음과 관련된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밝고 재치 있고 활기찬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남촌시사 문인들과 교유하는 동안 경재의 문학적 역량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경재와 평생을 같이 한 강화학파들과의 망명 전 교유시에서는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 지조와 관련된 ‘捨生取義’, ‘松柏’, ‘梅’ 등의 낱말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강화학파를 계승할 인재 鄭寅普(1893~1950)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과 함께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다수 있다. 망명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강화지역 인사들과의 교유시에서는 장소가 고향이어서 그런지 서로 학문을 권면하는 시에서조차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제자들과의 교유시에서는 학문에 힘써 국권을 회복할 나라의 동량이 되기를 바라는 경재의 마음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망명 전 교유시 가운데에서도 특히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시를 통해 경재의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확인했다. 만약 시대가 평화로웠다면 경재의 문학적 역량은 형 李建昌(1852~1898) 못지않았을 것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본 논문은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경재, 이건승, 해경당수초, 경재집, 남촌시사, 강화학파, 양명학, 계명 의숙,

1. 서론

耕齋 李建昇(1858~1924)은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서간도로 망명을 떠난 유교지식인 중 한 사람이다. 그가 남긴 문집 『海耕堂收草』(일명 『耕齋集』)는 망명 후 작품이 수록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복사본이 먼저 알려지고, 망명 전후 작품이 모두 수록된 서울대규장각 소장본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로 인해 그의 망명 후 삶은 일부 알려진 것에 반해, 망명 전 삶은 그리 알려지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경제와 관련한 연구는 망명 전후를 다룬 연구는 1편¹⁾ 뿐이다. 나머지는 망명 후를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²⁾ 그마저도 단독 학위논문은 없고, 서간도 망명 유교지식인 중 한 사람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³⁾ 그밖에는 강화학파나 하곡학파를 언급할 때,⁴⁾ 형이건창과 함께 언급할 때,⁵⁾ 「안중근전」을 언급할 때,⁶⁾ 황현의 교유 인

-
- 1) 이은영, 「耕齋 李建昇의 亡命 前後 梅花詩 變化 樣相 研究」, 『漢文學論集』 제47집, 근역한문학회, 2017.
 - 2) 정양완, 「耕齋 李建昇 선생의 『海耕堂收艸』에 대하여」, 한국양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5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 2008; 천병돈, 「경제 이건승의 민족정신」, 『陽明學』 제40집, 한국양명학회, 2015; 호광수, 「이건승의 망명 한시에 나타난 상황성」, 『中國人文科學』 34집, 중국인문학회 2006.
 - 3) 이은영, 「20世紀初 儒敎知識人의 亡命과 漢文學 :西間島 亡命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 논문), 2012.
 - 4) 김용재 「한국양명학 연구현황과 새로운 모색 - 강화학 연구의 필요성과 접근방법을 중심 주제로 -」, 『陽明學』 제14집, 한국양명학회, 2005; 김윤경, 「후기 하곡학파의 진가론과 실학」, 『유학연구』 제42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8; 김호, 김용재, 「19~20세기 초, 조선 유학사상계의 表裏」, 『양명학』 제64집, 한국양명학회, 2011; 서경숙, 「강화학파의 유적지 발굴조사」, 『한국양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양명학회, 2005; 송석준, 「조선조 양명학의 수용과 연구 현황」, 『陽明學』 제12집, 한국양명학회, 2004; 양태부, 「특별부록 : 하곡 정제두의 가계와 '강화학파' 묘지발굴조사」, 『陽明學』 제24집, 한국양명학회, 2009; 천병돈, 「후기 하곡학파의 실천정신」, 『陽明學』 제50집, 한국양명학회, 2018; 최재목, 「江華 陽明學派 연구의 방향과 과제」, 『陽明學』 제12집, 한국양명학회, 2004; 최재목, 이상훈, 「강화양명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정리」, 『陽明學』 제16집, 한국양명학회, 2006.
 - 5) 김기승, 「이건창 형제의 사상과 애국교육운동」, 『누리와 말씀』 제5집,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 6) 윤선자, 「일제강점기의 안중근전기(傳記)들에 기술된 안중근의거와 천주교신앙」, 『교회사학』 제11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14; 최영옥, 「김택영의 안중근 형상화 검토」,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학회, 2012.

물들을 언급할 때,⁷⁾ 또는 南村詩社 문인들을 언급할 때⁸⁾ 거론될 뿐이다.

경제의 망명지 교유 인물들은 함께 망명을 떠난 강화학과의 汶園 洪承憲(1854~1914)과 綺堂 鄭元夏(1855~1925)를 제외하면 망명 전 교유한 적이 없던 영남지역 인물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 달리 망명 전 교유 인물들은 남촌시사 문인들, 강화학과 인물들, 강화지역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의 망명 전 삶의 일면과 문학적 역량 살피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규장각 본에 수록된 망명 전 교유 시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교유시

李建昇(1858~1924)의 자는 保卿이고, 호는 耕齋·海耕堂이며, 본관은 全州이다. 부친 梁山郡守 李象學(1829~1888)과 모친 坡平尹氏 사이에서 1858년(철종 9) 강화도 沙器里에서 3남 중 2남으로 태어났다. 조부 李是遠(1770~1866)으로부터 家學인 陽明學(일명 江華學)을 익혔다. 형으로 관료이자 韓末四大文章家 중 한 사람인 寧齋 李建昌(1852~1898)이 있다.

젊어서부터 형 이견창의 주도로 결성된 南村詩社(일명 南社)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강화에 啓明義塾을 설립하고 계몽교육에 힘썼으나, 일제의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이상 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자정에 힘썼다.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주는 慰藉金을 거부하고 평생 익힌 강화학의 ‘知行合一’을 실천코자 망명을 떠난 서간도에서 節義를 지키며 살다 1924년 생을 마감했다.

7) 박중훈, 「梅泉 懷人詩에 드러난 현실 인식」, 『韓國詩歌文化研究』 제28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심경호, 「황현의 교유 관계 - 특히 강화학과와의 교유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제46집, 애산학회, 2019.

8) 안대회, 「고종 시기 학계와 문단의 동향 -南社 同人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104집, 대동문화연구원, 2018; _____, 「조선말기의 문예그룹 南社와 南社同人의 문학활동」, 『韓國漢詩研究』 제25집, 한국한시학회, 2017.

현재 『해경당수초』에 수록된 망명 전 한시 총 212제 가운데 교유시는 117제로 확인된다. 그중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시는 41제, 강화학과 인물들과의 교유시는 22제, 강화지역 인사들과의 교유시는 24제, 그밖에 명확한 인적 사항 확인되지 않는 인물들과의 교유시는 30제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망명 전 한시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시	강화학과 인물들과의 교유시	강화지역 인사들과의 교유시	인적 사항 확인 불가 인물과의 교유시
총 212제	41제	22제	24제	30제
총 117제				

표1-<교유시 분류표>

2.1.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시

경재의 형 이진창은 1860년대 후반 洪岐周(1829~1898), 李重夏(1846~1917), 鄭基雨(1846~1917) 등 소론계 문인들과 함께 서울의 남산 아래 회현동의 남촌 지역을 거점으로 남촌시사를 결성했다.⁹⁾ 이들 남촌시사는 당대 노론계의 양반 권세가들이 모여 활약하던 北村詩社와 대척점에 있었다.¹⁰⁾ 남촌시사에는 이진창과 함께 한말사대문장가로 이름난 姜瑋(1820~1884), 黃玆(1855~1910), 金澤榮(1850~1927)을 비롯해 李南珪(1855~1907), 李根洙(?~?), 成蕙永(1844~?), 金昌舜(?~?), 呂圭亨(1848~1921), 그리고 이중하의 아들 李範世(1874~1940) 등이 활약했다. 경재 또한 20, 30대 젊은 나이에 남촌시사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당대 내로라하는 문인들과 교유를 가졌다.

『해경당수초』 한시의 첫수는 남촌시사 문인 중 한 사람인 茂亨 鄭萬

9) 남촌시사 관련 내용은 안대희, 「조선말기의 문예그룹 南社와 南社同人의 문학활동」, 『한국한시연구』 제25권, 한국한시학회, 2017, 12면, 21-24면, 26면을 기저로 서술하였다.

10) 김용태, 「박규수의 북촌시단사 활동 - 조면호와 신석희의 자료를 중심으로」, 『제7회 실학연구 공동발표회 조선 후기 실학사의 재조명』, 사단법인 실학학사, 2017, 78면 참조.

朝(1858~1936)로 부터 시작된다. 남촌시사 문인들은 거의 매일 밤 모여 술을 마시고 시를 읊조리다 헤어지면 바로 그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깊은 교유를 가졌다. 그중 경재가 고향에 돌아와서도 생각할 정도로 마음을 기울였던 문인은 정만조와 그의 형 葵園 鄭丙朝(1863~1945)이다.¹¹⁾ 아래는 남촌시사 문인들의 모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정 무정의 집에서 밤에 모이다[鄭茂亭宅夜集]」¹²⁾이다.

賞心正愛夜如年	즐거운 마음으로 정히 아끼는 하룻밤 1년 같은데
隔屋壺觴又一筵	건너편 방에 술상이 또 한 자리 펼쳐졌네
星斗闌干遙掛樹	북두성은 비스듬히 비추다 아스라이 나무에 걸렸고
霜華凝結近橫天	서리꽃은 엉겨 붙어 가까운 하늘에 비껴있네
元龍問舍金何似	元龍이 집값 시세가 어떠냐고 물으니
司馬同鄰不偶然	司馬와 이웃한 것이 우연은 아니라네
方丈拈來難得法	方丈이 難得法으로 집어 올린 방에서
新詩合喚淨名篇	새로운 시를 모아 향기 맡아보니 淨名篇이라네

위의 시는 서리가 내리는 계절에 남촌시사 문인들이 정만조의 집에 모였을 때 지은 것이다. 경재가 남긴 自註를 통해 방이 너무 좁아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없자 두 방으로 나뉘서 모임을 가진 사실, 정만조가 사는 골목에 경재가 세를 살았던 사실, 정만조가 司馬 벼슬을 지낸 사실,¹³⁾ 정만조의 향렬이 열두 번째라는 사실, 정만조가 경재의 고향인 강화에 집을 사고자 한 사실, 정만조가 방 하나를 ‘제7난득실’이라고 한 이유가 『維摩經』에 있는 여덟 가지 염불 가운데 일곱 번째 것이 어렵다는 것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¹⁴⁾ 이처럼 경재는

11) 이진승, 『해경당수초』(서울대규장각본) 권5, 23-a면, 「還鄉憶茂亭兄弟(時茂亭有西河之孫歸來甚念)」 “鄭家兄弟素心傾, 況復春來事可驚, 十起如君由至性, 三號從古抑過情.”

12) 이진승, 앞의 책, 권5, 1-a면, 「鄭茂亭宅夜集」

13) 정만조는 1883년(고종 20)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兼 畿沿海防軍司馬를 지냈다.

14) 이진승, 위의 책, 권5, 1-a면, 「鄭茂亭宅夜集」“(茂亭室窄會分二處), (余時僦屋茂亭宅巷裏茂亭官司馬排行亦十二), (茂亭欲買屋於吾鄉), (維摩經有八, 未會有難得之法, 其第七能令十方諸佛念時, 卽來茂亭取其義扁, 其室曰第七難得室)”

자주를 상세히 남겨 시의 내용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재의 망명 전후 시에서 두루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頸聯의 元龍은 매인 곳이 없어 호방한 기운이 넘쳐 淮海之土로 불리던 魏 나라 陳登¹⁵⁾의 字이다. 정만조의 호방한 성품을 진등에 비교한 것이다. 尾聯의 淨名은 인도 毘耶離國의 長子이자 석가모니의 俗弟子인 維摩居士가 늘 병을 핑계로 누워 병문안 온 제자들에게 훌륭한 설법을 펼친 것을 들어 그날 밤 문인들이 지은 시들이 명편을 이루었음을 빗댄 것이다. 정만조와 같은 골목에 살아서 그런지 경재의 문집에는 정만조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읊은 시가 제법 보인다.

아래는 경재가 형 이견창과 함께 荷亭 呂圭亨의 집에 가서 읊은 「형을 모시고 여 하정의 집에 모여 수선화를 읊다[陪家伯氏, 會呂荷亭宅, 賦水僊花]」¹⁶⁾이다.

浮踪是處便爲家	떠도는 신세라 머무는 곳 바로 집을 삼더니
離相虛空復現花	서로 떨어진 허공에서 다시금 꽃으로 드러났네
打算生涯餘澹泊	헤아려보니 평생 남은 것이라곤 담박함 뿐이요
矜持身分斂橫斜	공지를 지닐만한 신분은 거두어 비껴갔네
香塵寶襪盈盈水	향기로운 먼지 날리는 보배로운 버선엔 물이 넘실거리고
玉盞金臺灑灑霞	금 쟁반 위의 옥 잔엔 노을이 출렁이네
海岸荒村不曾見	해안가 황촌에선 일찍이 보지 못했으니
散仙客亦戀繁華	散仙客 또한 번화함을 사모하는가 보네

신선은 사는 곳에 따라 크게 天仙, 地仙, 水仙으로 나뉜다. 경련의 ‘香塵寶襪’은 魏 나라 曹植이 洛水 가에서 옛 情人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洛神賦」에 “물결을 타고 사뿐사뿐 걸으니, 비단 버선에 먼지가 이네.[凌波微步 羅襪生塵]”라고 한 말에서 온 것이다. 凌波仙子는 물의 여신으로 물 위를 사뿐사뿐 걷는다고 한다. ‘玉盞金臺’는 수선화의 모습인 은 쟁반 위에 놓인 황금 잔 같다고 해서 붙은 별칭 ‘金盞銀臺’를

15) 진등(陳登, ?~?) : 魏나라 사람으로 자는 元龍이다. 유명 인사 許汜가 방문했을 때 대놓고 무시하였다. 이는 허사가 진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였다. 이처럼 호방한 성품으로 인해 ‘豪氣陳登’이라는 성어가 만들어진 인물이다.

16) 이견승, 앞의 책, 권5, 10-a면, 「陪家伯氏, 會呂荷亭宅, 賦水僊花」

뜻한다. 미련의 해안가 황촌에선 일찍이 보지 못했다는 구절을 통해 경재는 이때 수선화를 처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수선화가 들어온 것은 1812년(순조 12) 紫霞 申緯(1769~1845)가 연경 사행길에 갖고 온 것이 시초인만큼¹⁷⁾ 당시 전국에 널리 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散仙은 아직 관직을 받지 못한 仙界의 仙人이라는 뜻으로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는 은자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은자를 닮은 수선화가 변화한 서울에 있는 것을 보고 고향에 옮겨다 심고 싶어하는 경재의 마음이 엿보인다.

아래는 경재가 남촌시사 문인인 二松 李鶴遠(?~?), 秋帆(?~?), 葆堂 徐丙壽(?~?, 일명 徐光祚)와 함께 남산에 올랐을 때의 에피소드를 읊은 「이송·추범·보당과 함께 남산 봉수대에 올라 밥을 짓고 차를 끓이다 소나무 채취를 금하는 衛士에게 힐문을 당하고 급히 돌아가다 길을 잃고 뺨뺨한 나무 사이에서 서로 잃어버렸다가 釋神堂으로 점점 모여들자 서로 보면서 크게 웃고는 술을 씻어 다시 밥을 해 먹었던 것을 시로 지어 기록하다[與二松·秋帆·葆堂登南山烽臺，炊飯煮茶，爲禁松衛士所詰處，遽歸迷路，相失於亂木間，至釋神堂稍稍會集，相視大笑，洗鑊更飯，因以賦詩記之]」¹⁸⁾이다.

抛却殘書手共携	남은 책 내던지고 서로 손을 잡아 이끈
鬧塵不到澗之西	속세의 티끌 이르지 않은 계곡 시내 서쪽
香塵灑灑桃花暖	향기로운 먼지 넘실대는데 복숭아꽃 따사롭고
小雨濛濛布穀啼	가랑비 내리는 데 빠꾸기 울어대네
靈運耽山寧是賊	謝靈運 ¹⁹⁾ 은 산을 탐해서 차라리 도적으로 불렸으나
襄陵失路易相迷	襄陵에서 길을 잃고 쉽게 서로 헤매었다네
林間黍熟青烟細	숲속에서 밥 익는 푸른 연기 가늘게 피우며

17) 李裕元, 『林下筆記』 제32권, 「水仙花」 “在昔壬申, 紫霞使燕冬回携來之, 此爲東來之始也.”

18) 이건승, 위의 책, 권5, 13-a면, 「與二松·秋帆·葆堂登南山烽臺，炊飯煮茶，爲禁松衛士所詰處，遽歸迷路，相失於亂木間，至釋神堂稍稍會集，相視大笑，洗鑊更飯，因以賦詩記之」

19) 사영운(謝靈運, 385~433) :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시인이다.抒情을 주로 하던 기존의 중국 문학 사상에 山水詩의 길을 열어놓았다. 저서에 『謝康樂集』이 있다.

大笑歸來日欲低 한바탕 웃다 돌아오는 데 해가 저물려 하네

경재의 친척 이학원은 이건창의 소개로 소년 시절부터 남촌시사에서 활동하였으며, 관직생활 없이 김윤식 등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평생 문사로만 살았다.²⁰⁾ 秋帆은 남촌시사 문인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데 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병수의 자는 熙叟, 본관은 대구, 본명은 光祚이다. 孝文公 徐憲淳의 손자이자 爲堂 鄭寅普(1893~1950)의 外叔²¹⁾이며, 최익현의 문인이기도 한 서병수는 光陽, 突山, 洪川 등에서 군수를 지낸 것에 이어 1904년부터 1906년까지 文化郡守를 지낸 인물이다. 자주의 釋神堂은 남산에 있던 불교 건물로 추정된다.

首聯의 鬧塵이 속세의 티끌이라면 額聯의 香塵은 본래 ‘봄날의 먼지’를 뜻하는데 속세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다. 그만큼 경치가 좋은 곳으로 봄나들이 갔음을 의미한다. 경련의 靈運은 南宋의 시인 사영운으로 深山幽谷 탐색하는 것을 매우 즐겨 山賊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²²⁾ 襄陵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경재는 남산 아래 회현동에 거처하며 하루 이틀 남산을 오른 것이 아님에도 길을 잃은 자신들을 사영운의 고사에 빗댄 것이다.

위의 시는 하루 사이에 벌어진 에피소드를 읊은 작품이지만 독자로 하여금 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생동감이 전해지는 작품이다.

아래는 남촌시사 문인 중 한 사람인 황현이 1899년(광무 3) 4월 구례에서 경재를 찾아왔을 때 읊은 「황 매천이 먼 곳에서 와 위문하다[黃梅泉遠來慰問]」²³⁾이다.

野外東風欲捲沙 들 밖의 東風이 모래를 말고자 하는데

20) 안대회, 위의 논문, 25면 참조.

21) 이지원, 「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 『2019년 한글날 학술대회 집』, 여주세종문화재단, 2019, 175면 참조.

22) 한국고전원종합DB(<https://db.itkc.or.kr>) 尹善道, 『孤山遺稿』 권1, 「南歸記行(辛亥)」, [주-D018] 참조;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을묘(1735, 옹정) 11월 20일(을묘) <소대를 행하여 《자치통감강목》을 강하였다> 참조.

23) 이진승, 위의 책, 권5, 36-b면, 「黃梅泉遠來慰問」

古人白馬到天涯	옛사람이 백마를 타고 하늘 가에 도착했네
秧針短短纔水過	벼모는 짧디짧아 겨우 물 위로 나왔고
木葉慘慘未掩家	나뭇잎은 늘어졌지만 집을 가리지는 못했네
握手將歡先下淚	악수 나누며 기뻐하려는 데 앞서 눈물이 흐르고
披顛相示尙無華	고개 들어 자세히 보자니 여전히 꾸밈이 없네
少俟江鄉甘雨後	잠시 기다리자 강화 마을에 단비가 내린 후
共看紅藥放新花	함께 보노라니 붉은 작약에 새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네

수련에서는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멀리 구례에 거주하는 황현이 경재를 찾아온 것을 언급했다. 경련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기뻐하려는데, 경재의 형이자 황현의 벗인 이견창이 1898년(광무 2)에 죽고 없는 현실을 상기하고 눈물이 앞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미련에서는 슬픔에 잠겨 있던 중 단비가 내린 후 두 사람의 아픔이 붉은 작약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모습을 그리고 있다. 평생 존경하던 형을 잃은 경재의 아픔과 평생 자신을 믿어주던 벗을 잃은 황현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황현은 이때 경재를 만나고 돌아간 다음 해인 1900년 세모를 맞이하여 5언 장편 연작시로 19명에 대한 회인시 「세모에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짓다[歲暮懷人諸作]」²⁴⁾를 지었다. 황현은 다섯 번째로 경재를 읊으면서 “죽은 사람(이견창-필자 주)은 이미 구천에 있고, 산 사람(이견승-필자 주)은 또 천리 밖에 있네. 난리로 어지러워 인연 맺음도 소원해지고 거처하는 곳에서 각자 늙어가고 있다네.[死者已九原, 生者又千里. 亂離成契濶, 居然各暮齒.]”라고 읊으며 경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이중하의 아들 이범세는 경재가 망명지에서 학문을 권면한 국내 젊은이 중 한 사람이다.²⁵⁾ 이범세는 1926년 경재의 大祥이 가까워진 즈음에 지은 「경재 어른을 제한 글[祭耕齋宗丈文]」에서 “옛날 甯齋翁(이견창-필자 주)을 생각하면 先親(이중하-필자 주)의 벗으로, 남촌에서

24) 黃玟, 『黃玟全集』上, 아세아문화사, 1978, 235면, 「歲暮懷人諸作」

25) 이은영, 「耕齋 李建昇의 亡命 前後 梅花詩 變化 樣相 研究」, 『한문학논집』 제47집, 근역한문학회, 2017, 190면 참조.

새벽부터 저녁까지 문장을 논하며 술을 마셨다네. 공(이건승-필자 주)은 그 사이에서 함께 어울리며 주선하였는데 풍류와 문채가 전후로 빛났다네.[念昔窳翁, 先君是友, 南村晨夕, 論文對酒. 公於其間, 與共周旋, 風流文采, 照後前光]"²⁶⁾라는 구절을 통해 남촌시사에서의 경재의 역할과 위치를 알 수 있는 구절을 남겼다.

경재는 남촌시사 문인들과 많은 교류를 가지는 동안 문학적 역량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20여 년간 왕성하게 활동하며 30여 년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던 남촌시사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친일과 반일로 나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경재가 자주 교류하던 정만조 형제를 비롯한 다수의 문인은 일제강점기 때 朝鮮文藝社·鏡華社·瀾遠社 등의 시사를 주도하며 문단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전통 한문학의 宗匠 행세를 하며 친일 행보를 보였다. 친일 행보를 보인 문인들과 반대의 길을 간 경재와 황현, 김택영, 이중하와 이범세 父子 등은 해외 망명, 자결, 국내에서의 자정을 통해 항일의 길로 들어섰다.²⁷⁾ 경재가 항일의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 폭넓게 가진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류시에서는 형의 죽음과 관련된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밝고 재치있고 활기찬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남촌시사 문인들과 교류하는 동안 경재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문학적 역량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2.2. 강화학파 인물들과의 교류시

강화학파 인물들은 경재의 형 이견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홍승헌과 정원하와는 집안 대대로 인연이 있었다. 정원하는 조선 양명학의 태두인 霞谷 鄭齊斗(1649~1736)의 6대 종손으로 三司 요직을 두루 지냈고, 홍승헌은 耳溪 洪良浩(1701~1778)의 5대 종손으로 역시 삼사 요직을 두루 지냈다.²⁸⁾ 경재의 5대조 李匡明(1701~1778)은

26) 李範夏, 『恥齋集』卷之二(후손 소장), 「祭耕齋宗丈文」

27) 안대회, 위의 논문, 23면 참조.

28) 이은영, 『요동의 학이 되어 -서간도 망명 우국지사 이견승·안효제·노상익·노상직·예대회·조정규와 안창계를 중심으로』, 학자원, 2016, 38면, 216면 참조.

정제두의 제자이자 손녀사위가 되었고, 경재의 양자인 李建繪의 아들 李錫夏와 홍승원의 딸이 혼인을 하면서²⁹⁾ 경재와 홍승헌은 사돈 관계가 되었다.

아래는 홍승헌에 대한 경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5언 배율시 「을사년 11월 보름에 문원에게 받들어 화답하다[乙巳十一月望奉和汶園]」³⁰⁾이다.

汶翁我師表	문옹(홍승헌-필자 주)은 나의 師表로
當迷舉一隅	(나에게) 미혹됨이 있으면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다네
從容取舍際	조용히 取舍를 할 때면
義與聖訓符	義와 聖의 가르침 딱 들어맞았다네
將此松柏志	장차 이분(홍승헌-필자 주)은 松柏의 뜻
無負歲寒期	날이 추위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네
尙有芳隣在	여전히 좋은 이웃 있으니
不作窮廬悲	곤궁한 슬픔은 짓지 않으리라

위의 시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보낸 시이다. 경재는 홍승헌에 대해 ‘捨生取義’를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자 ‘松柏’의 지조를 저버리지 않는 인물이자 경재에게 미혹됨이 있으면 늘 한 모퉁이를 들어 깨우쳐주던 師表라고 하였다. 홍승헌에 대한 경재의 존경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 구에서 언급한 窮廬는 朱子の 「奉酬丘子野表兄飲酒之句」에, “예부터 곤궁한 선비는 세모에 고심이 많다[古來窮廬士, 歲暮多苦心]”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11월 보름은 12월 세모를 앞둔 시점이다. 비록 시절이 어수선해서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사표로 삼을 만한 홍승헌 같은 좋은 이웃이 있으므로 경재는 곤궁한 선비의 슬픔은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을사늑약 당시 홍승헌은 常山(현 진천)에 살고 있었고, 정원하는 江華府 鎮江山 西麓 霞峴에 살고 있었다.³¹⁾ 아래는 경재와 정원하와의 관

29) 이건승, 위의 책, 권5, 34-a면, 「迎婦日志喜」

30) 이건승, 앞의 책, 권5, 73-a면, 「乙巳十一月望奉和汶園」

31) 이은영, 위의 논문, 199-200면 참조.

계를 알 수 있는 「동짓달 20일 기당을 방문하다[至月二十日訪綺堂]」³²⁾
3수 중 제3수이다.

士與大夫死義均	선비와 사대부 죽음으로 의리 지킴은 같건만
封章竟不到楓宸	상소문은 끝내 궁궐에 도달하지 못했다네
奸臣賣國忠臣死	간신은 나라 팔아먹고 충신은 죽으니
我輩欲爲何等人	우리들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3수 중 제3수)

承句의 封章은 임금에게 올리는 上疏文을 가리키고, 楓宸은 漢 나라 때 임금이 사는 궁궐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던 데서 궁궐의 의미로 쓰였다. 轉句의 ‘奸臣賣國忠臣死’를 통해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동짓달임이 확인된다. 경재는 을사늑약 때 정원하와 함께 음독 자결을 하려다 가족들의 만류로 실패한 일이 있다. 당시 경재가 간신과 충신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는 ‘사생취의’와 ‘송백의 지조’를 지킬 것이 명백한 홍승원을 사표로 삼은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양명학을 공부하며 형과 함께 어울려 지내던 홍승원과 정원하, 그들은 경재의 끝을 함께 했다. 망명을 떠나기 전까지 함께 울분을 토한 사람들도 그들이고, 함께 망명을 떠난 이들도 그들이고, 망명지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들도 다름 아닌 강화학파 학자들이었다.

경재는 충청북도 鎭川에서 활동한 강화학파 學山 鄭寅杓(1855~1935), 杞園 李鍾滢(1859~?) 등과도 교유가 있었다. 진천에 살던 홍승원이 같은 고을에 살고 있던 정인표와 이종형을 초대해서 함께 읍은 아래의 7언 42구의 장편시 「문원이 장황한 말로 편지를 부치기를 매화 아래 술자리를 벌여놓고 학산과 기원을 초대해 함께 장편시를 지었다고 했다. 그 시를 읽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갔다. 내가 가진 세 그루 매화가 바야흐로 흐드러지게 피었고, 술 또한 익었는데 다만 이 귀한 손님 없음에 오래도록 슬퍼하다 그 운을 차운해서 받들다[汶園寄郵書盛說, 梅花下置酒, 邀學山杞園, 共賦長篇, 讀其詩不覺心馳神往, 余有三樹梅方盛開, 酒且告熟, 但無此佳客, 悵然久之, 奉次其韻]」³³⁾를 통해 확인된다.

32) 이진승, 위의 책, 권5, 73-a면, 「至月二十日訪綺堂」

(상략)

來書函飽知何辭 보내온 편지 만족스러우니 무슨 말을 하랴
 新詩并寄梅香送 새로 지은 시에다 매화향까지 보내왔네
 如見三人對鬚眉 세 사람과 수염과 눈썹 마주하고 만난 듯하고
 盆花紅白并二種 화분에는 붉은 꽃 흰 꽃 두 종류가 함께 피었으리

(하략)

시 제목의 매화는 月沙 李廷龜(1564~1635)가 1596년(선조 29) 명나라 사행길에 갖고 온 大明梅, 일명 月沙梅의 후손이다. 이는 경재의 형 이견창이 성균관 泮村의 김 아무개 집에서 접붙인 묘목을 구해서 西江의 집에 옮겨 심은 것이다. 그 후 이견창은 두 번째 귀양지인 전라도 寶城에서 풀려난 1894년(고종 31) 낙향할 때 이 매화를 강화 집에 옮겨 심으면서 강화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 월사매는 홍승헌이 충청북도 진천으로 일부 가져가 진천의 草坪里 맹우들에게 접붙여 나누어졌던 매화이다.³⁴⁾ 세 사람이 수염과 눈썹을 마주한다는 말은 그만큼 다정하게 앉았다는 뜻이다. 두 사람 가운데 정인표는 강화학자로 확인되나 이종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종형도 같은 강화학자로 추정된다.

경재는 형 이견창이 귀양 갈 때 형을 찾아갔던 진천 출신의 강화학파 溥齋 李相高(1870~1917)이 월과에 급제하자 이를 축하하며 5언 10구 4수 연작시 「이순오의 월과 급제를 축하하다(계사년에 창설된 월과에나 또한 천선으로 응시했는데, 그 뒤에 바로 형이 귀양을 갔다.)」[賀李舜五月課及第(癸巳創設月課, 余亦薦選赴試, 尋以伯氏恩譴已)]³⁵⁾를 짓기도 했다. 순오는 이상설의 자이다.

아래는 경재가 강화학파 인물이자 재종제인 蘭谷 李建芳

33) 이견승, 앞의 책, 권5, 66-a면, 「汶園寄郵書盛說, 梅花下置酒, 邀學山杞園, 共賦長篇, 讀其詩不覺心馳神往, 余有三樹梅方盛開, 酒且告熟, 但無此佳客, 悵然久之, 奉次其韻」

* 이은영, 위의 논문, 194-195면 번역 재인용.

34) 이은영, 앞의 논문, 192면 참조.

35) 이견승, 위의 책, 권5, 22-b면, 「賀李舜五月課及第(癸巳創設月課余亦薦選赴試尋以伯氏恩譴已)」

(1861~1939)의 제자이자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정인보에게 지어 준 5언 18구의 「경업에게 주다[贈經業]」³⁶⁾이다.

童子蓄圖章	동자가 도장을 모으는 것은
無乃佩觸類	뿔송곳을 차는 류가 아니라!
(중략)	
期汝遠且大	기대되노니 너의 遠大해짐
刻名豈無地	이름 새길 곳 어찌 없으랴
竹帛久不磨	靑史[竹帛]는 오래되어도 마모됨 없으니
燕然亦其次	燕然山도 그 다음일 뿐이라네
須此不朽章	모름지기 이 도장 不朽할 것이므로
刻汝好名字	너의 좋은 이름자를 새겨주노라
試觀古名錫	옛날에 이름난 관료[錫]들 한 번 살펴보면
幼志長必遂	어린 시절 지닌 뜻 자라서 필히 성취하더라
是詩當橋頌	이 시는 橋頌에 짝할 것인즉
努力宜自致	노력하면 마땅히 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네

經業은 정인보의 자이다. 佩觸는 매듭을 푸는 데 사용하는 뿔송곳으로 갓 성년이 된 남자들이 차고 다녔다. 이는 『시경』 <衛風> 「花蘭」에, “화란의 가지여, 동자가 뿔송곳을 차고 있다네. 비록 뿔송곳 차고 있으나, 나의 지혜보다는 못하다네.[花蘭之支, 童子佩觸, 雖則佩觸, 能不我知.]”라 하여, 나이가 어려서 즉위한 衛나라 惠公이 신하들에게 자신이 재주가 있는 척하며 교만을 부렸기 때문에 혜공의 지혜롭지 못함을 나무란 데서 유래하였다. 이로부터 뿔송곳은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 차고 다니는 물건이 되었다.

燕然山(일명, 杭愛山)은 몽고 지방에 있는 산으로, 車騎將軍 竇憲이 그곳에서 흉노를 격파하는 공적을 세우고 돌아오자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 공적비를 세웠다. 錫은 옛 중국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신하에게 공적에 따라 車馬·衣服·弓矢 등 아홉 가지 恩典을 내려주는 九錫 제도에서 가져온 말로 관료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橋頌은 屈

36) 이진승, 앞의 책, 권5, 58-a면, 「贈經業」

原의 『楚辭』〈九章〉의 「굴송」에 “나이는 비록 어려도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네.[年歲雖少, 可師長兮.]”라는 구절의 제목에서 갖고 온 것이다. 경재가 나이는 어려도 스승을 삼아도 좋을 만큼 뛰어난 제자 정인보에게 지금 가진 뜻을 훗날 반드시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도장을 새겨주고 시를 지어준 것이다.

경재가 망명 전부터 망명 후까지 함께 한 사람들은 모두 강화학과 학자들이다. 이는 강화학과 학자들과의 교유가 학문을 넘어서 집안 대대로 이어진 유대관계 때문이다. 특히 경재의 강화학과 인물들과의 교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처럼 유대가 깊은 강화학과 학자들과의 망명 전 교유시에서는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 지조와 관련된 ‘捨生取義’, ‘松柏’, ‘梅’ 등의 낱말이 많이 보인다. 경재는 강화학과를 계승할 인재 정인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과 함께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교유시를 다수 남겼다.

2.3. 강화지역 인사들과의 교유시

경재가 강화지역에서 교유한 인사들은 크게 벗과 제자로 나뉘볼 수 있다.

2.3.1. 벗들과의 교유시

아래는 경재가 서울에서 종종 고향으로 돌아와 만난 벗들과 어울리며 읊은 「서울에서 돌아와 고향의 군자들을 초대해 밤에 마시다[自京還邀同鄉諸君子夜飲]³⁷⁾이다.

輕雷地底屬新春	가벼운 우렛소리 땅속까지 미치면 새봄이 오리니
近節英華似隔鄰	가까운 시기에 꽃들이 이웃처럼 피어날 것이라네
小集鄉園惟數客	작은 모임을 고향 동산에서 가지자니 몇몇 객뿐인 것은
暫遊京駱動兼旬	잠시 서울서 노니느라 움직인 게 스무날뿐이라서네.

37) 이진승, 앞의 책, 권5, 3-a면, 「自京還邀同鄉諸君子夜飲」

經秋不見詩盈篋	가을을 보내면서 시가 상자에 차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入夜相尋月滿巾	밤이 들자 서로 찾으니 달빛이 巾箱에 가득하네
聞道明經新揀選	소식을 듣자니 明經科로 새로 선발을 한다고 하니
急須努力共攀鱗	서둘러 모름지기 노력하여 함께 (용의) 비늘 잡아 보게나

고향에 돌아와 함께 공부하던 벗들과 어울리며 조정에서 명경과 설치를 논한 사실³⁸⁾을 상기하고, 반가운 마음과 함께 명경과 시험 실시를 대비해 서로 학문을 권면하는 모습이다.

수련의 地雷는 『周易』 <復卦>에 나오는 것으로 비로소 양의 기운이 시작됨을 뜻한다. 경련의 ‘經秋不見詩盈篋’은 가을을 지내는 동안 시를 많이 짓지 못했다는 뜻이다. ‘月滿巾’은 달빛이 들자 책을 넣어두는 巾箱에 술자리에서 지은 시들이 가득 차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미련의 攀鱗은 제왕 또는 名士와 어울리며 공적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 揚雄의 『法言』 「淵騫」에 “용의 비늘을 부여잡고 봉황의 날개를 붙든다.[攀龍鱗附鳳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훌륭한 벗들과 함께 관직에 나아가 공적을 세워보자는 뜻이다.

경재는 중추절 때 고향 벗들과 진등사에 올라 시를 짓는 등의 교류를 이어갔다.³⁹⁾ 그런데 경재의 벗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바로 檀湖 閔斗鉉(?~?)이다. 민두현은 경재가 망명지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워하던 인물이다. 아래는 경재가 고향으로 돌아와 민두현과 石癡 李龍九(?~?)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읊은 「고향으로 돌아와 민 단호와 이 석치와 함께 마시다[還鄉與閔檀湖李石癡共飲]」⁴⁰⁾이다.

棲遲京洛動經秋	서울에서 한적하게 지내다 걸핏하면 가을을 보내고자
歸臥鄉山掩小樓	고향 산에 돌아와 누워 작은 누각을 닫노라면
已負園中楓似錦	이미 정원을 뒤덮은 단풍은 비단 같고
尙留嶺上月如鉤	여전히 산봉우리 위에 초승달이 머물러 있다네
屠龍竟是輸屠狗	용을 잡으려다 끝내 개를 도살하는 곳으로 보내지고

38) 이건승, 앞의 책, 권5, 3-a면, 「自京還邀同鄉諸君子夜飲」“(時朝廷議設明經科)”

39) 이건승, 앞의 책, 권5, 5-a면, 「仲秋九月, 與同鄉諸君子游傳燈寺, 分韻應無所住, 而生其心得住字」

40) 이건승, 앞의 책, 권5, 18-b면, 「還鄉與閔檀湖李石癡共飲」

騎馬何曾勝騎牛 말을 탄 자가 어찌 일찍이 소 탄 자를 이기랴
幸有羊裘三徑在 다행이 羊仲과 裘仲이 있어 三徑에 들었으니
從今尺擬近隣遊 지금부터 지척에 가까운 이웃을 흥내내며 노닐리라

민두현의 자는 仲七이고, 본관은 驪興이다. 본래부터 강화 출신은 아니고, 훗날 강화로 이주해서 경재와 함께 살았던 인물로 서로 깊이 이해하는 사이였다. 경재는 민두현의 맑은 시를 좋아하였고, 언제나 경재보다 민두현이 경재를 더 사랑한다고 믿었다.⁴¹⁾ 이용구는 이견창과의 교유⁴²⁾도 있던 인물로 확인되나 정확한 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련의 羊裘는 羊仲과 裘仲을 함께 이른 것이다. 西漢 말 蔣詡가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산보하는 길에 세 개의 길[三徑]을 만들어놓고 오직 羊仲과 裘仲과만 소요했다는 고사가 있다. 屠龍은 『莊子』 「列禦寇」에 “朱泮漫이 支離益에게서 용 잡는 기술을 배웠는데, 천금의 재산을 다 없애고 3년 만에 기술은 익혔으나 그 기교를 쓸 곳이 없었다.[朱泮漫學屠龍於支離益 單千金之家, 三年技成, 而無所用其巧.]”라고 한테서 유래한 말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쓸 곳이 없다는 뜻으로 ‘屠龍無用’이라고 한다. 경재가 그만큼 민두현의 재주를 아껴서 언급한 것이다.

그밖에 경재가 강화에서 교유한 벗으로는 閔友竹, 梧坡, 沈聖五, 閔惺堂, 聽蕉 金進士 등이 확인된다. 그중 민우죽은 민두현의 형 友竹 閔台鉉(?~?)이다. 다른 인물들은 현재 본명도 확인되지 않는다. 경재가 친분이 깊은 사람들은 실명을 거론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화지역 벗들과의 교유시에서는 장소가 고향이어서 그런지 서로 학문을 권면하는 시에서조차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들이 주를 이룬다.

2.3.2. 제자들과의 교유시

경재는 「글방 소년들과 함께 읊다[與家塾少年共吟]」⁴³⁾에서 “근래에

41) 정양완,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 -특히 경재 이견승의 『해경당수초』를 중심으로』, 월인, 2012, 442면, 444면 참조.

42) 이견창, 『명미당집』 권5, 「石癡(李龍九號)有歲時詩十首戲書其後」

風流는 소년들보다 못하니, 남은 생의 經濟는 농가에서 시험해보려네.
[近日風流輸少輩, 殘年經濟試田家.]라고 하여, 제자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이러한 마음이짐으로 경제는 을사늑약 직후인 1906년 강화에 계명의숙을 세웠다. 그 제자들은 경제의 환갑 때 망명지 서간도에 있는 경제에게 환갑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은잔과 은수저를 보냈다. 그러자 경제는 그에 대해 감회를 읊으며 아래의 시 「내가 일찍이 병오년(1906)에 사립 계명의숙을 세웠는데, 졸업생 12명이 은술잔과 수저로 환갑을 축하함에 그 뜻이 고마워 시로써 감사한다[余嘗於丙午歲 建私立啓明義塾 卒業十二人 以銀盃及匙箸 爲弧辰之壽 其意可感 以詩謝之]」⁴⁴⁾는 내용의 7언절구 3수를 지어 보냈다. 아래는 그중 제3수이다.

刻鏤啓明字畫新 새겨 놓은 계명이란 자획이 새롭고
銀光燦燦動弧辰 은빛 찬란하여 생일임을 알게 하네
如何萬念俱灰日 어이해 온갖 생각 모두 싸늘하게 식어버린 날
復使衰翁淚淺巾 다시 쇠한 늙은이로 하여금 눈물로 수건을 적시게 하나(3수 중 제3수)

경제가 처음 계명의숙을 세웠을 때는 애국사상을 고취 시켜 국권회복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명의숙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뛰어난 제자들은 빨빨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환갑날 이역만리까지 선물을 보내주었으니 그 감동은 쉽게 잊혀질 것이 아니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桑田碧海를 이루면서 모든 것이 빨리 변해가는데 오직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만은 옛날 그대로였기 때문이다.⁴⁵⁾ 경제는 망명지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보내온 선물

43) 이건승, 위의 책, 권5, 47-a면, 「與家塾少年共吟」

44) 이건승, 『해경당수초』(국사편찬위원회복사본), 「余嘗於丙午歲 建私立啓明義塾 卒業十二人 以銀盃及匙箸 爲弧辰之壽 其意可感 以詩謝之」

45) 이건승, 앞의 책, 「余嘗於丙午歲 建私立啓明義塾 卒業十二人 以銀盃及匙箸 爲弧辰之壽 其意可感 以詩謝之」 “瓮算紛紜瓮破悲, 英才落落盡相離. 眼看滄海誰無變, 惟有君心似舊時.”(3수 중 제2수)

을 볼 때마다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처음 계획을 이루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현재 경제에게 은잔과 수저를 보낸 계명의숙 제자들은 12명으로 확인된다. 그중 4명의 행적이 확인된다. 華東 權炳孝(1869~?)는 下道面 沙器洞 출신으로 초대 화도(옛 하도면) 면장을 지냈으며, 의술에 능통했던 인물⁴⁶⁾로 온수리에서 개업했다. 讓寧大君의 후손으로 2대 화도 면장을 지낸 李善宰는 청소년들에게 한문과 신학문을 가르쳤다. 이긴 방은 경제의 사촌 동생으로 정인보의 스승이다. 東觀 朴憲用(1882~1940)은 『續修增補江都誌』를 편찬한 인물로, 1916년 黃基範과 함께 군자금에 부족한 상해 임시정부를 돕기 위해 구입한 지폐인쇄기를 안동현(현 중국 단동)으로 밀반출하려다 日警에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는 안창호와 제휴하여 군사 연락원으로 활동하다 山海關에서 체포되어 旅順 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⁴⁷⁾

계명의숙에서 수학한 제자들은 경제가 망명을 떠난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던 만큼, 항일 투쟁에 힘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22년 10월 현재 강화 출신 독립유공자로 확인되는 인물은 총 74명⁴⁸⁾이다. 直傳 또는 再傳 제자 가운데 경제의 영향을 받아 항일 운동에 투신한 인물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박헌용 외에 현재 명확히 확인되는 인물은 없다.

46) 『조선총독부 관보』 제0546호(大正3年(1914) 5月 29日) 「醫生免許」 376면 참조.

47) 華東 權炳孝(1869~?)는 下道面~3년간 옥고를 치렀다. : 정양완, 위의 책, 527면 참조.

48)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의 강화지역 독립유공자 74명 명단 : 桂基奉, 高翊鎭, 權泰哲, 權平根, 金教昌, 金德順, 金鳳熙, 金世元, 金麗洙, 金龍順, 金有義, 金允元, 金炯周, 柳明植, 朴啓石, 朴吉陽, 朴永淑, 朴永七, 方烈, 方漢祚, 徐英伯, 申義澈, 申泰允, 申泰義, 廉成五, 吳龍辰, 柳甲順, 劉景根, 劉鳳鎭, 劉點善, 劉學瑞, 劉學用, 劉熙哲, 尹馬利亞, 尹允用, 尹鍾爽, 李建英, 李能權, 李奉石, 李思國, 李淳承, 李允文, 李在向, 李潛承, 李重燮, 林斗曄, 張羅得, 張明淳, 張三壽, 張相用, 張然實, 張興煥, 鄭道享, 鄭弘文, 趙龜元, 趙基信, 曹基浩, 曹仁愛, 趙在玉, 趙鍾祐, 趙鍾桓, 朱聖日, 朱昌日, 池弘允, 崔公涉, 崔德姪, 韓春根, 黃道文, 黃道成, 黃用根, 黃源泰, 黃允實, 黃日男, 黃俊實.

경재의 제자 가운데에는 呂南燮(1879~1909)이 있다. 자가 士薰인 여남섭은 갓 스무살 때⁴⁹⁾ 이견창이 강화로 낙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학하기 위해 개성에서 강화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이견창이 이미 고인이 된 것을 알게 된 여남섭은 경재로부터 수학하며 이견방과도 친하게 지냈다.⁵⁰⁾ 여남섭은 이견방의 권유로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상해에 유학을 다녀오는 등 경재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⁵¹⁾ 여남섭이 중국 유학을 위해 개성의 彩墨亭에서 중국어를 공부한다는 소식을 접한 경재는 아래의 시 「사훈에게 부치다[寄士薰]」⁵²⁾를 지어 보냈다.

言辭不相通	言辭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無由辨枉直	옳고 그름을 분별할 길이 없다네
謀國豈在斯	나라일 도모함이 어찌 여기(언어-필자 주)에 있겠나만
交隣是亦或	이웃 나라와의 교류에서라면 또한 더러 그렇기도 하다네
(중략)	
我有浮海心	나에게는 浮海하고픈 마음 있어
擬與携手亟	진작부터 함께 손을 잡고자 했다네
不須象譯隨	모름지기 통역하는 사람 거느릴 필요 없이
庶君爲我德	멋진 그대가 나를 위해 덕을 베풀어주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나라일을 경영하는 일은 언어 소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는 반드시 언어 소통이 필요하다. 경재는 여남섭이 나라일 경영에 참여할 인물일 뿐 아니라,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도 필요한 인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경재는 망명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魯仲連⁵³⁾처럼 浮海

49) 이견승, 『해경당수초』(서울대규장각본) 권1, 12-b면, 「祭呂士薰(南燮)文」 “昔予就予, 乃在弱年.”

50) 정양완, 위의 책, 534면 참조.

51) 민영규, 『강화학 최후의 풍경』, 又半, 1994, 31면 참조.

52) 이견승, 위의 책, 권5, 78-a면, 「寄士薰」

53) 노중련(魯仲連, ?~?): 전국시대 齊나라 高士이다. 秦나라가 조나라의 邯鄲을 포위했는데, 魏나라가 장군을 보내 조나라가 진나라를 천자로 섬기면 물로가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마침 조나라에 있던 노중련이 그 말을 듣고 “진나라가 천자를 僭稱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겠다.”고 한 말을 듣고 진나라가 물러갔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경재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제자에게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그만큼 경재가 여남섭을 한편으로는 믿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여남섭이 살아 있었다면 경재를 따라 망명을 떠났을 것임에 틀림없다.

경재는 중국 유학길에 오르는 여남섭과 헤어지는 길에 “은근하게 기억하라며 갈림길에서 이른 말, 다만 마음을 참되게 하는 데만 힘쓰고 명예일랑은 가까이 말라.[殷勤記取臨岐語, 但務真心莫近名.]”⁵⁴⁾는 당부의를 말을 남겼다. 그밖에도 경재는 “훗날 경서에서 말하는 뜻 잊지 않는다면 만리 밖에서 오동나무 꽃으로 (봉황이) 날아드는 모습 보게 되리라[他時莫忘購經志, 會看桐花萬里飛]”⁵⁵⁾며 여남섭이 학문에 힘써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게 아끼던 여남섭은 경재가 망명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909년에 생을 마감했고,⁵⁶⁾ 그에 따른 경재의 슬픔은 매우 컸다.⁵⁷⁾

이처럼 강화지역 제자들과의 교유시에서는 제자들이 학문에 힘써 국권을 회복할 나라의 동량이 되기를 바라는 경재의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3. 결론

이상으로 경재의 망명 전 교유시를 살펴보았다. 경재는 남촌시사 문인들과 오랜 기간 상당한 유대관계를 가졌다. 비록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친일 행적을 펼친 인물들과의 교유는 끊어졌으나, 교유가 한창이던 시절 경재의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시는 형의 죽음과 관련된

는 고사가 전한다.

54) 정양완, 위의 책, 543면 「送土薰」

* 현재 이 시는 『해경당수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55) 정양완, 앞의 책, 544면 「與呂南燮」

* 현재 이 시는 『해경당수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56) 각주 51) 참조.

57) 이진승, 위의 책, 권1, 12-b면, 「祭呂土薰(南燮)文」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밝고 재치있고 활기찬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남촌시사 문인들과 교유하는 동안 경재의 문학적 역량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망명 전 강화학자들과의 교유는 홍승헌·정원하·이상설·이건방·정인보를 비롯해 충청북도 진천 지역 학자들과의 교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강화학자들과의 교유는 혼인 등 집안 대대로 이어진 유대관계도 있었던 만큼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 그 이상이었다. 그에 따라 경재가 강화학파 학자들과 가진 망명 전 교유시에는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 지조와 관련된 ‘捨生取義’, ‘松柏’, ‘梅’ 등의 낱말이 많이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더해 강화학파를 계승할 인재 정인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과 함께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교유시를 다수 남겼다. 마지막으로 강화지역 인사들과의 교유는 민두현을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자들 가운데 啓明義塾의 제자들 몇 사람의 인적 사항이 파악되었으나, 그들 가운데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은 박헌용뿐이며, 나머지 제자들 대부분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강화지역 인사들과의 교유 면모를 파악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경재가 강화지역 벗들과의 교유시에서는 장소가 고향이어서 그런지 서로 학문을 권면하는 시에서 조차 평온함이 느껴지는 시들이 주를 이룬다. 강화지역 제자들과의 교유시에서는 학문에 힘써 국권을 회복할 나라의 동량이 되기를 바라는 경재의 마음을 곳곳에서 드러냈다.

경재의 망명 전 교유시 가운데에서도 특히 남촌시사 문인들과의 교유시를 통해 그의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확인했다. 만약 시대가 평화로웠다면 경재의 문학적 역량은 형 이견창 못지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추후 경재에 대한 연구는 생애 전반에 걸친 연구와 망명 전후 비교 문학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 둔다.

[ABSTRACT]

The study about Kyungjae, Geon-seung Lee's companionable poetries before the exile

Lee, Eunyoung(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is about aspects of Kyungjae, Geon-seung Lee(1858~1924)'s life before exile and his literary ability through the companionable poetries included in 'Haegyeongdang Sucho' the anthology also known as 'Kyungjaezip' by Kyungjae Geon-seung Lee. Except for Seung-heon Hong(1854-1914) and Won-ha Jeong(1855-1925) of the Ganghwa School, who exiled together, the figures that Kyungjae met in exile were mainly people from the Yeongnam region who had never met before his exile. On the other hand, the figures he had met before his exile are mainly writers from Namchon poetry society, Ganghwa School, and Ganghwa a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ies with the writers from Namchon poetry society who showed pro-Japanese behavior were cut off. However, most of the poems of friendship with the writers of Namchon society, when the friendship was in full swing, were bright, witty, and lively, except for the poems related to the death of his older brother. This means that Kyungjae's literary competence was clearly revealed while interacting with the writers of Namchon society. Words such as 'Sa-saeng-chui-ui; giving one's life for righteousness', pine trees, and plum blossoms which are related to fidelity due to the pain of the times were used in the friendship poems with Ganghwa scholars who had shared their lives with Kyungjae.

Many works also showed strong expectations with special affection for In-bo Jeong(1893~1950), a talented person who would succeed the Ganghwa School. Poetries of friendship with people from the Ganghwa area, whom he has never met after exile, make mainly us feel tranquility even in the poems encouraging each other to study, perhaps because the place it talked about were their hometown. However, when interacting with his disciples, he showed his wishes for them to become the keys of the country that will restore national sovereignty by working hard on cures.

Among the friendship poems before the exile, Kyungjae's excellent literary qualities were confirmed through the poems with the writers of Namchon society, in particular. This thesis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s that if the times had been peaceful, Kyungjae's literary competence would have been as good as that of his older brother Geonchang Lee(1852~1898).

Key word : Kyungjae, Geon-seung Lee, Haegyeongdangsucho(Kyeongjae's Works Collection), Kyeongjaezip, Namchon poetry society, Ganghwa Study, Yangmyong Study, Kyemyong School

[참고문헌]

■ 기본자료

- 李建昇, 『海耕堂收草』(서울대학교 규장각본)
李建昇, 『海耕堂收草』(국사편찬위원회복사본)
李建昌, 『明美堂集』(한국문집총간 349)
李範世, 『恥齋集』(후손 소장)
李裕元, 『林下筆記』(서울대학교 규장각 사본)
黃 玹, 『黃玹全集』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 단행본

- 민영규, 『江華學 최후의 광경』, 又半, 1994. 31면.
이은영, 『요동의 학이 되어 -서간도 망명 우국지사이건승·안효제·노상익·노상직·예대희·조정규와 안창제를 중심으로』, 학자원, 2016. 38면, 216면.
정양완,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 5, 특히 耕齋 李建昇의 『海耕堂收草』를 中心으로』, 월인, 2012. 38면, 442-544면.

■ 논문

- 김용태, 「박규수의 북촌시단사 활동 - 조면호와 신석희의 자료를 중심으로」, 『제7회 실학연구 공동발표회 조선 후기 실학사의 재조명』, 사단법인 실학학사, 2017. 78면.
안대회, 「조선말기의 문예그룹 南社와 南社同人의 문학활동」, 『韓國漢詩研究』 제25집, 한국한시학회, 2017. 12-26면.
이은영, 「耕齋 李建昇의 亡命 前後 梅花詩 變化 樣相 研究」, 『한문학논집』 제47집, 근역한문학회, 2017. 190-200면.
이지원, 「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 『2019년 한글날 학술대회집』, 여주 세종문화재단, 2019. 175면.
* 『조선총독부 관보』 제0546호(大正3年(1914) 5月 29日) 「醫生免許」